"게임 콘텐츠 가치 현실화"… 게임사, 잇따라 NFT 진출 검토

〈대체불가능토큰〉

NFT 접목한 '돈 버는 게임' 제작
거래 플랫폼 조성 등 시장진출 속도
일각선 재미보다 수익성 치중 우려

NFT를 적용한 '플레이투언' 방식의 '미르4 글로벌' /위메이드

게임빌은 자사의 대표 IP '게임빌프로야구'에 NFT를 접목시킨다는 계획이다. /게임빌

게임사들이 너도나도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임사들은 게임 머니를 NFT로 발행하거나 NFT를 거래하는 게임 플랫폼을 만들면서 관련 시장 진출에 서두르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빌, 위메이드가 NFT 시장에 진출해 있는 가운데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등도 NFT 진출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NFT로 급부상한 위메이드

현재 국내에서 NFT 게임 시장의 선두에 서 있는 건 위메이드다.

지난 21일 성황리에 종료한 지스타 2021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의 컨퍼런스를 선보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의 '블록체인 기술과 게이밍 : 위믹스 플랫폼 케이스 중심'이었다.

김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위메이드의 기축 토큰인 위믹스와 위믹스 플랫폼에 대해 소개했다.

위메이드는 기존에 평범한 중견 게임사였지만 NFT를 적용한 '플레이투언(돈 버는 게임)' 방식의 '미르4 글로벌'이 흥행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미르4 글로벌은 출시 이후 국내 게임업계에 NFT 바람을 몰고 왔다.

시가 총액도 상승세에 올랐다. 올해 '오딘: 발할라 라이징'을 가지고 게임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성공을 기록한 카카오게임즈 주가마저도 넘보고 있으며 10월29일, 11월22일에는 카카오게임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은 국내 주식 상위 10위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게임빌, NFT 플랫폼 준비

게임빌도 NFT 플랫폼 조성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게임빌은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2대주주다. NFT가 블록체인의 토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해 복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를 보유한 게임빌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것이다.

게임빌은 자회사 게임빌컴투스플랫폼을 통해서 NFT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에 최적화한 블록체인 게임들도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크로매틱 소울: AFK 레이드'를 시작으로 캐주얼한 게임성을 갖춘 '프로젝트 MR(가칭)', 게임빌의 대표 IP '게임빌프로야구'도 블록체인 기술에 NFT를 접목시킨다는 계획이다.

◆재미보다 NFT 집중하는 분위기에 주객전도 비판도

하지만 게임사가 NFT 사업처럼 수익성 산업에만 집중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동근 크래프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1일 열린 실적발표회에서 "NFT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NFT 트렌드가 게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NFT 진출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게임 속 콘텐츠가 게임 밖에서도 가치를 지니려면 게임의 본질적 가치인 재미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NFT 위주로만 흘러가는 게임업계 분위기를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국내에서 NFT 기술 적용 게임이 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하다.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용자 등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NFT 게임에 대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 우려가 있다"며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처럼 돈이 된다고 다 시도하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며 "규제는 개선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기술이 불법인 상황에서 공수표만 날리는 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中서 사라진 채굴기, 美·러시아 등 세계 각 국으로 흘러가

차이나 뉴스&리포트

美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국가 부상
베네수엘라, 주민소득 증대 활용 관심

중국은 지난 5월부터 강도 높은 가상화폐 규제에 단행했다. /유토이미지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면서 채굴기가 세계 각 국으로 흘러들어갔다. 미국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국가가 됐고,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도 대규모 채굴처로 떠올랐다.

23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 금지 조치 이후 채굴 규모가 큰 14개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이 중국에서 200만대 이상의 채굴기를 미국과 캐나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으로 옮겼다.

중국은 올해 들어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지난 5월에는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모두 금지했고, 9월에는 해외에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최대 가상화폐 채굴 회사 중 하나인 비트 디지털은 자산을 중국 밖으로 운송하기 위해 국제 물류 회사를 고용했다. 아직도 뉴욕항 터미널에 쌓여있는 채굴 기계는 1000여대에 달한다.

비트 디지털 샘 타바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작년 3월부터 채굴기를 이전하기 시작했는데 돌이켜보면 옳은 선택이었다"며 "금지령이 발표됐을 당시 우리는 중국에 2만개의 채굴장을 가지고 있었고, 수백대의 채굴기는 포기해야 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금지조치 이후 북미에 있는 채굴업체들이 대부분 채굴기 수를 늘렸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채굴업체인 헛8은 금지령 이후 중국 판매자들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았다. 룩소르 마이닝에 따르면 중국 금지령에 따른 채굴기 투매로 채굴장비 '앤트마이너 S19'의 가격이 40%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역시 주요 채굴처가 됐다.

카자흐스탄의 채굴기 대부분은 중국 채굴 회사인 비트푸푸와 BIT마이닝에서 가져온 것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비트 클러스터는 중국으로부터 5000대 이상의 채굴기를 받았다.

러시아 가상화폐 채굴업체인 비트리버 로만 자부가 대변인은 "가상화폐 시장의 초점이 장비 부족에서 장비를 위한 공간 부족으로 옮겨갔다"며 "중국 고객사 한 곳은 추가로 100만대의 기계를 판매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채굴 금지 조치 이후 중국에 70만대에 달하는 채굴기가 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기 가격이 저렴한 베네수엘라나 파라과이 같은 곳으로는 구형 채굴기가 유입됐다.

베네수엘라 채굴업체인 닥터 마이너 후안 호세 핀토 설립자는 "중국의 채굴 금지가 중요한 기회"라며 "중국으로부터 7000대 정도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침체되면서 가상화폐 채굴은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오스틴 공장 크기 4배… 2024년 말 이후 반도체 생산 전망

〉〉 1면 '美 테일러시에 파운…'서 계속

발표 현장에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도 참석하며 발표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고 했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오전 8시다.

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투자 건은 삼성의 해외 단일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 정부와의 인센티브 협상 등의 문제로 공장 부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아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테일러시에 건립되면 18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반도체 생산은 2024년 말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테일러시는 처음 10년 동안 최대 92.5%의 재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의 미국 첫 번째 파운드리 공장인 텍사스 오스틴시 인근에 위치한 작은 도시다. 공장과 도로 등을 포함한 전체 부지 규모는 485만여㎡로 기존 오스틴 공장보다 4배가량 넓다.

매출 기준 세계 1위 반도체 업체인 삼성은 향후 3년간 2050억 달러 이상을 반도체 제조에 투자할 계획이다. 경쟁 업체인 대만 TSMC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100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 인텔 또한 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테일러시로 확정하기 전 애리조나와 뉴욕, 플로리다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1공장이 있는 텍사스 오스틴도 고려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는 또 삼성의 미국 반도체 공장 위치 결정은 지난 8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구글 본사를 방문해 순다르 피차이최고경영자 등을 만나 시스템반도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자율주행, 플랫폼 혁명 등 미래 신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폰 '픽셀'에 자체 설계한 AP를 탑재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를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1면 '대출 문 다시여는…'서 계속

"실수요자 필요분 기조 여전 이전만큼 대출공급 어려워"

다만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비주택담보대출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8일 기준 7.25%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6%대를 초과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최소한으로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연말 막차수요…은행 "이전 만큼 대출 불가"

이에 따라 일각에선 올해 말 대출 막차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2단계를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별 DSR 40%를 적용했다. 내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차주별 DSR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7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6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9.7%로, 7월 10%까지 증가하다 8월 9.5%, 9월 9.2%, 10월 8.6%로 감소했다. 은행에서 가계대출 중단을 통해 대출 증가속도를 낮췄지만 대출공급을 재개할 경우 또 다시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출규제 기조가 여전하다"며 "대출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이전만큼의 대출 공급은 어려워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